

보도자료

제목	백남준 추모 14주기 안내		
문의	- 취재문의: 김선영 학예사(t.031-201-8552 m.010-4665-9290)		
자료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 다운로드		
배포	2020.1.28.	쪽수	총 6매

백남준 추모 14주기

- ▶ 백남준 14주기 추모제 및 문화공연 봉은사에서 개최 (2020.1.29.)
- ▶ 백남준아트센터 백남준 추모 주간 퍼포먼스 개최 (1.31.)
- ▶ 백남준아트센터 소장품 연구 선집 『백남준아트센터 소장품 하이라이트』 발간 (2월)

2020년 1월 29일은 세계적인 예술가 백남준(1932~2006) 작고 14주기를 맞이하는 날이다. 백남준은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이자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을 해왔던 예술가로 여전히 가장 '현대적인' 작가로 칭송받고 있다. 텔레비전과 비디오를 예술의 매체로 사용한 '비디오 아트'의 아버지이자 다자간 소통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계와 공존하는 사이버네틱화 된 사회를 예견하고 그에 대한 예술적 비전을 제시했던 백남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삶에 더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백남준의 14주기를 맞이하여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김성은은 “우리와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백남준의 터로서” 백남준아트센터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그리고 최근 테이트를 비롯해 백남준 전시를 여는 세계 유수의 미술관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환영하며 “작가의 명성에만 기대거나 명분만을 앞세우지 않고, 백남준이 우리에게 던져 준 예술적, 지적 도전에 진정으로 임하다 보면 백남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모든 이들은 결국 서로 닿게 될 것이다. 백남준아트센터가 미진했던 부분은 문을 더 활짝 열어 힘을 모으고, 힘을 보탬 수 있는 곳에는 더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겠다.”고 밝혔다.

백남준아트센터는 추모 주간 중 1월 31일(금)에 퍼포먼스 <팝업, 게릴라, 파르티잔>을 개최한다. 안무가 조형준과 건축가 손민선이 결성한 작가그룹 뿔이 소설가, 거문고 연주자, 영화감독 등과 협업하여,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으로 전시실 공간을 탐색하면서 관객과 함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공연이다. 백남준과 플럭서스의 정신을 구현하며 실험적 퍼포먼스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는 백남준아트센터는 이 공연을 통해, 음악과 건축 사이의 유동적 공간을 만들었던 백남준의 초기 전위적 기획을 되살리고자 한다.

백남준아트센터는 또한 소장품 연구 선집인 『백남준아트센터 소장품 하이라이트』 발간도 앞두고 있다. 올해로 개관 12주년을 맞는 백남준아트센터가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장품 50점을 소개하는 책이다. 백남준아트센터의 학예연구원들이 필자로 참여하여 엄선된 작품을 해제하고 미술사적 배경과 의의를 서술하였다. 백남준의 작품이 유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생명력을 갖고 백남준과 함께 오래 살아 나가도록 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백남준의 유해가 있는 봉은사에서는 타계 14주기를 맞이하여 1월 29일(수) 4시 추모재를 갖는다. 추모재는 불교전통의 천도재 형식으로 열리며 봉은사 스님들과 신도, 백남준스튜디오 한국 측 대리인 도로시남, 백기사(백남준을 기리는 사람들), 백남준아트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봉은사는 백남준을 기리는 많은 이들과 함께 백남준의 예술 세계가 후대에 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는 추모재를 2007년부터 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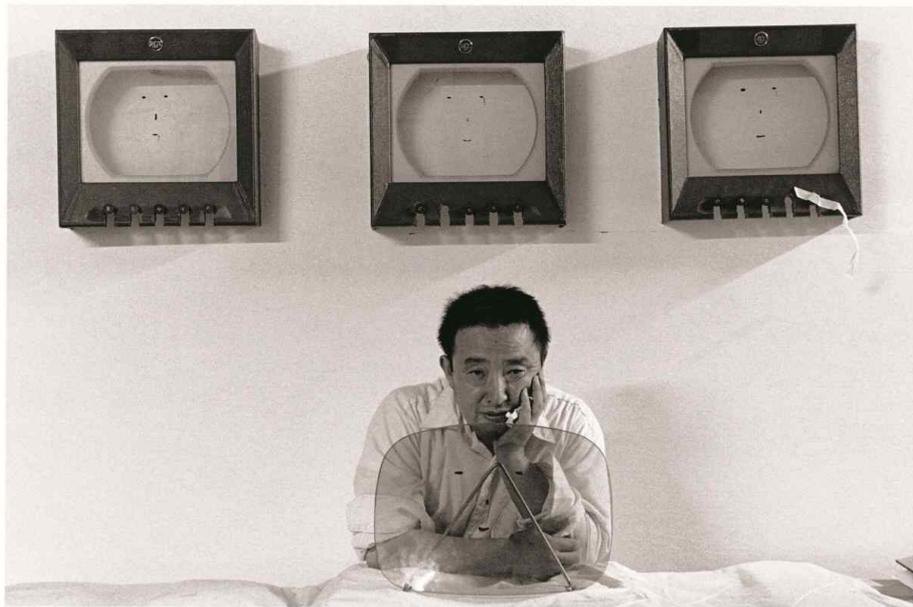
백남준 추모 14주기에 부쳐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김성은

2020년 1월 29일은 백남준 작가의 열네 해째 추모일입니다. 한 작가의 이름을 건 미술관에서 작가가 떠난 후 몇 해가 흘렀는지를 꼬박꼬박 셈하는 것은 그 시간에 합당한 노력을 힘껏 쏟았는지 돌아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백남준 작고 2년 후에 문을 연 백남준아트센터는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이 되라는 작가의 유지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과거에 박제된 위인이 아니라 우리와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고자 했던 백남준의 터로서 미술관을 가꾸는 일입니다. 거창한 프로젝트 몇 번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백남준아트센터의 하루하루가 모이고 쌓여 그 토양이 다져져야 하는 일입니다. 백남준 작가가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늘 되묻습니다. 실험과 실패마저도 경로의 동력으로 삼았던 백남준이라면 백남준아트센터라는 터에서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사유하고 어떻게 행동했을까, 상상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해외 여러 미술관들이 백남준에 관한 전시를 열었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존복원, 연구출판에 있어서도 백남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세계 각지의 이 같은 노력들이 무척 반갑고 기쁩니다. 백남준아트센터가 매일을 백남준에 골몰하며 백남준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 다른 곳에서 백남준을 특별히 만날 수 있는 기회들도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이들이 백남준의 예술과 사상을 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의 명성에만 기대거나 명분만을 앞세우지 않고, 백남준이 우리에게 던져 준 예술적, 지적 도전에 진정으로 임하다 보면 백남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모든 이들은 결국 서로 닿게 될 것입니다. 백남준아트센터가 미진했던 부분은 문을 더 활짝 열어 힘을 모으겠습니다. 백남준아트센터가 힘을 보탬 수 있는 곳에는 더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함께'의 가치를 믿었던 백남준을 오래 살게 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백남준(1932.7.20.~2006.1.29.)



1983년 뉴욕 스튜디오에서의 백남준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 임영균)

백남준은 1932년 종로에서 태어나 청소년기에 홍콩을 거쳐 일본으로 이주, 도쿄대학교에서 미학을 전공하였다. 1956년 독일로 건너가 유럽 철학과 현대 음악을 공부하면서 기존의 예술 규범과는 다른 급진적 퍼포먼스로 예술 활동을 펼쳤다. 1963년 독일 부퍼탈에서 열린 첫 개인전 《음악의 전시 - 전자 텔레비전》을 통해 미디어 아티스트의 길에 들어섰다.

1964년 미국으로 이주한 백남준은 본격적으로 비디오를 사용한 작품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영상을 자유자재로 편집할 수 있는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개발하고, 비디오 영상과 조각, 설치를 결합하였으며, 여기에 음악과 신체에 관한 끊임없는 탐구까지 더해져 백남준만의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하였다. 1980년대부터는 위성 기술을 이용한 텔레비전 생방송을 통해 전위 예술과 대중문화의 벽을 허무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기획하였고, 1996년 이후 뇌졸중으로 투병하던 와중에도 레이저 기술을 도입한 작품을 선보이는 등 2006년 마이애미에서 타계할 때까지 백남준의 예술적 실천은 멈추지 않았다.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이자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을 했던 백남준은 여전히 가장 '현대적인 예술가'로서 우리 곁에 숨 쉬고 있다.

백남준아트센터 추모 주간 퍼포먼스 『팝업, 게릴라, 파르티잔』(작가: 뭉) 개최

■ 제목: 팝업, 게릴라, 파르티잔 Pop-up, Guerilla, Partisan

- 연출, 구성: 뭉(조형준, 손민선)
- 시나리오: 정지돈
- 비디오그래피: 백종관
- 팝업 구조물: 무단횡단
- 거문고: 황진아

■ 일시: 2020년 1월 31일(금) 오후 4시(40분 내외 소요)

■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2층 블랙박스

안무가 조형준과 건축가 손민선의 협업체인 뭉[Mu:p]은 이번 퍼포먼스 <팝업, 게릴라, 파르티잔>를 위해 소설가, 영화감독, 거문고 연주자 등과 협업하였다. 백남준아트센터의 2층 전시 공간인 블랙박스를 관람객들과 퍼포머들이 함께 점유하고, 움직임과 공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탐색해 나가는 가운데 전시실 안에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진다. 일정한 거점 없이 불쑥 나타나서 비공식 경로에 의해 불규칙적이고 변칙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팝업', '게릴라', '파르티잔'의 의미를 공간 현상으로 경험하게 된다.

백남준아트센터는 백남준의 플렉서스 실천을 계승하여 여러 실험적 퍼포먼스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임무도 자임한다. 백남준은 초기인 1950년대부터 '불확정성', '시간 예술'을 강조하면서, 공간적 개념으로 작곡을 하고 음악과 건축 사이에 유동적 공간을 만드는 기획을 개진하였다. 백남준 예술의 이러한 근원을 되새기며 백남준아트센터는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공간이 탄생할 수 있는 실험을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

뭉[Mu:p]은 특정 장소의 맥락에 신체 및 사물을 배치함으로써 발생하는 공간과 안무, 현상에 대해 실험하며, 비선형적인 연합과 학제적인 교차를 통해 작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최근작으로는 <데카당스시스템_아플라>(2019, 파라다이스 아트랩), <{Open set}⊂Phase lag>(2019, 플랫폼엘), <맑고, 높은, 소리>(2018, 코리아나미술관) 등이 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사업 선정작

봉은사, 故 백남준 14주기 문화공연 및 추모제 봉행

- 일시: 2020년 1월 29일(수) 오후 4시
- 장소: 봉은사 법왕루
- 주최 및 주관: 봉은사

백남준의 타계 14주기를 맞아 1월 29일(수) 오후 4시 봉은사에서 추모제를 갖는다.

- 추모제는 불교전통의 천도제 형식으로 열리며 봉은사 스님들과 신도, 백남준스튜디오의 한국 측 대리인 도로시 남, 백기사(백남준을 기리는 사람들), 백남준아트센터 관계자를 비롯한 가족 및 지인들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당일 의식에 앞서 특별히 백남준을 기리는 문화공연 및 봉은국악 합주단의 육자배기, 창 등이 진행되며,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의 염원으로 제작된 백남준 석조 데드마스크 조형물에 천도제 이후 헌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 어린 시절 백남준의 추억이 깃든 봉은사 법왕루에는 고인의 사진, 하영진 조각가가 주조한 작품인 백남준의 데드마스크(사후 고인의 얼굴을 청동으로 본떠 만든 상), 유해를 보관 중이다.
- 봉은사는 백남준을 기리는 많은 이들과 함께 백남준 선생님의 예술 세계가 후대에 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추모제를 2007년부터 지내고 있다.